

갈치, 김 등 주요 수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중입니다.

- "금사과 이어...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금갈치·금김 우려"(조선일보, 6.7.) 보도 관련 -

< 보도 주요 내용 >

- 수온 상승으로 그간 안정세였던 수산물 물가도 오르고 있음
 - 5월 김밥용 김 도매가격은 전년비 77%, 건미역은 평년보다 13% 상승했으며 갈치도 연초보다 20%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

< 설명 내용 >

- 5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*(CPI)는 전년 동월 대비 0.1% 상승에 그쳐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 - * 수산물 CPI(전년비) : ('24.1) 2.2%, (2월) 1.8%, (3월) 1.7%, (4월) 0.4%, **(5월) 0.1%**
 - 갈치(전년비 $\Delta 0.8\%$), 고등어($\Delta 6.3\%$), 명태($\Delta 1.3\%$)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.
- 갈치의 경우 '냉동 中'(표준규격) 기준 5월 중도매인 판매가격(aT)은 12,593원/kg으로 평년(3개년 평균) 5월에 비해서는 $\Delta 14.0\%$ 낮으며, 5월 소비자가격(aT)도 작년 대비 $\Delta 37.7\%$ 낮은 3,771원/마리('23.5월 5,192원)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- 김은 수온 상승과 무관하게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했으나,
 -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의 영향으로 5월 3주부터 소비자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.

* 소비자가격(aT, 원/10매) : (5월1주) 1,268, (2주) 1,291, **(3주) 1,248, (4주) 1,201, (5주) 1,219**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44-200-5440)
	유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정재훈 (044-200-5447)